

# 간호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과 폭력허용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융합적 관계

정계현<sup>1</sup>, 강미경<sup>2\*</sup>

<sup>1</sup>대전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청운대학교 간호학과

## The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Dating Violence Experience, Violence Tolerance,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Gye-Hyun Jung<sup>1</sup>, Mi-Kyung Kang<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 폭력 허용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충청권 소재 5개 대학교에서 편의 표집된 간호학과 대학생 219명에게 자가보고 형식의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chi^2$  test,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간호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허용도가 높고( $r=0.31$ ,  $p<.001$ ), 데이트 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부정적임( $r=-0.26$ ,  $p<.001$ )을 알 수 있었고, 학과 만족도와 음주 정도가 데이트 폭력 가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데이트 폭력 허용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데이트 폭력 예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융합, 데이트 폭력, 폭력 허용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호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gree of dating violence experience, violence tolerance,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219 college students from nursing in 5 universities of Chungcheong region were convenience selected for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by t-test,  $\chi^2$  test and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using the SPSS 20.0 program. As a result,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more experience dating violence, the higher the tolerance for dating violence( $r=0.31$ ,  $p<.001$ ), the higher the tolerance of dating violence is, the more negative the ability to solve social problems( $r=-0.26$ ,  $p<.001$ ), and the degree of their departmental satisfaction and drinking are related to the violence of dating violence. Therefore, it provided a ration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dating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to raise awareness of dating violence tolerance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ies in order to prevent dating violence.

**Key Words** : Convergence, Dating violence, Violence tolerance, Social problems Solving ability, College students, Nursing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Daejeon University Research Grants(2017)

\*Corresponding Author : Mi-Kyung Kang([bladeghost@daum.net](mailto:bladeghost@daum.net))

Received December 13, 2017

Revised December 20, 2017

Accepted February 20,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초기 성인기의 대학생은 친밀감을 형성하고 사회 문화적 요소에 따라 발달하는 시기로, 대학생의 건강한 데이트 경험은 이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결혼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1]. 데이트 관계에서 이성 교제 기간에 따라 상호작용의 빈도와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상대방과의 견해 차이 혹은 대립으로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은 이성 간 폭력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2,3]. 또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인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과거에 배려나 양보였다면 최근에는 친밀한 관계일수록 은밀하게 부정적 정서를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식으로 데이트 폭력을 사용하고 있어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는 상태이다[4].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신체적, 성적 폭력과 스토킹으로 정의하였다[5]. 1981년 Makepeace가 데이트 폭력에 대해 언급한 이후, 데이트 폭력은 심리·사회적 건강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고[6], 국내에서도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과 관련 사고로 음주 후 연인을 타살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과 함께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7][8]. 2016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건수는 8,367건이었고 이중 449명이 구속이 되었으며[9], 2016년 한국여성의 전화 조사 결과에서도 61.6%가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고 이중 여대생에 해당되는 20대가 9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대의 데이트 폭력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10].

데이트 폭력 경험자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양한 이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2]. 데이트 폭력의 유형으로는 모욕이나 위협, 협박 등 심리적 폭력부터 의도적으로 힘이나 도구를 활용해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신체적 폭력, 혹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 위압하는 성적 폭력까지 다양하다 [11].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관심과 함께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13]. 이는 데이트 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을

동시에 겪고 있으며, 신체적 폭력이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고 관계를 지속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1,2]. 따라서 파트너로부터 받는 폭력 피해는 데이트 관계에서 다양한 이유로 폭력적인 행동을 행사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6]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 가해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다[14]. 갈등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허용적인 태도는 곧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과 연관이 되고 있으나, 데이트 폭력 가해 정도나 가해 행동의 영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15]. 대학생에게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은 대인관계나 정신건강, 대학 생활 적응, 학업, 미래에 대한 계획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중재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개인이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대처하는 과정으로[16] 자신의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이성교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조절하기 위한 합리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여 상대와의 갈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17]. 자해와 같은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폭력 문제의 고통을 이겨 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18] 역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사고, 감정, 인식 등 정신건강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19]. 또한 간호사의 역기능적 행동이나 신념의 결과가 사회적 문제해결에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20] 미래 간호사로서 간호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간호학과 학생들도 초기 성인기의 대학생으로 일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문화적 요소에 따라 발달하며, 취업, 결혼 등의 문제들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교과과정과 다양한 임상 실습 현장에서 환자 돌봄의 경험을 통해 대인관계를 성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해 가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간호 대학생에게 데이트

폭력은 환자를 돌보는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손상을 주는 요인으로[3] 보여 지며, 특히 간호 대학생의 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 폭력 허용도,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하여 데이트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 폭력 허용도,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간호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을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의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 폭력 허용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에 따른 폭력 허용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과 폭력 허용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 폭력 허용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D광역시와 C도에 위치한 5개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표본크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G\*Power 3.1.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21] 표본 선정을 위해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산출한

결과 134명이 산출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온라인을 통해 모집하였다. 연구대상자가 네이버 오피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응답으로 설문을 시행하였고, 설문에 응답하기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내용을 읽고 연구 참여에 동의서명 후 설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Strous [22]와 Shephard와 Compbell [23]의 도구를 수정·보완한 Choi [23]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로 측정되었다. 갈등관리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22] 도구에서 이성적 행동, 언어적 공격, 폭력적 행동 영역 중에서 신체적 폭력 행동에 해당하는 8문항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신체적 학대 행동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한 Shephard와 Compbell [23]와 중복되는 신체적 학대를 측정하는 문항을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를 측정하기 위한 9문항을 데이트 정서폭력의 측정을 위해 구성되었다.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본 도구는 총 17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1 = 없음', '2 = 일 년에 한두 번', '3 = 한 달에 한두 번', '4 = 1주일에 1회 이상', '5 = 거의 매일'로 구성 하였다. Choi [24]의 연구에서 전체 데이트 폭력의 Cronbach's  $\alpha$ 는 .82, 정서폭력의 Cronbach's  $\alpha$ 는 .79, 신체폭력의 Cronbach's  $\alpha$ 는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데이트 폭력의 Cronbach's  $\alpha$ 는 .92, 정서폭력의 Cronbach's  $\alpha$ 는 .86, 신체폭력의 Cronbach's  $\alpha$ 는 .96으로 나타났다.

#### 2.3.2 폭력 허용도

이성교제 간 폭력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가, 어느 정도까지를 폭력이라고 인식하는가를 의미한다[25]. 폭력 허용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Nam [25]의 폭력정당화 척도 (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를 Foo와 Margolin [26]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8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 허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Foo와 Margolin [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6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7로 나타났다.

### 2.3.3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교사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Nock와 Mendes [18]가 개발하고, Huh [27]가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4개의 하위요인을 문제규정, 대안 산출, 의사결정 및 수행확인으로 각 10문항씩 재구성한 척도를 Yang과 Mun [28]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0개 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Yang과 Mun [28]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1로 나타났다.

### 2.4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각 대학의 간호학과 과장님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내용을 읽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에게만 온라인 동의를 받은 후,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에 참여하던 중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고, 모든 정보는 번호 및 코드화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알려주었다. 온라인 설문 작성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간호대 학생 250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응답이 부실 기재된 설문지 31부를 제외한 21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연구변수들에 대한 서술적 통계는 평균, 표

Table 1. Differences in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19)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chi^2$	$p$
			No	Yes		
			N(%)			
Gender	Male	62(28.3)	29(13.2)	33(15.1)	2.59	0.124
	Female	157(71.7)	55(25.1)	102(46.6)		
Age	<20y	50(22.8)	27(12.3)	20(10.5)	7.01	0.030
	21-25y	151(68.9)	52(23.7)	99(45.2)		
	26y<	18(8.2)	5(2.3)	13(5.9)		
		22.42±2.91	22.04±2.44	22.66±3.15		
Religion	Yes	77(35.2)	31(14.2)	46(21.0)	0.18	0.771
	No	142(64.8)	53(24.2)	89(40.6)		
Grade	1	66(30.1)	35(16.0)	31(14.2)	14.13	0.003
	2	47(21.5)	13(5.9)	34(15.5)		
	3	74(33.8)	20(9.1)	54(24.7)		
	4	32(14.6)	16(7.3)	16(7.3)		
Monthly allowance	<200,000 won	37(16.9)	19(8.7)	18(8.2)	4.91	0.086
	200,000-400,000	129(58.9)	50(22.8)	79(36.1)		
	400,000 won<	53(24.2)	15(6.8)	38(17.4)		
Department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28(12.8)	5(2.3)	23(10.5)	8.02	0.018
	Common	130(59.4)	49(22.4)	81(37)		
	Satisfaction	61(27.9)	30(13.7)	31(14.2)		
Family living together	Yes	68(31.1)	26(11.9)	42(19.2)	0.01	0.980
	No	151(68.9)	58(26.5)	93(42.4)		
Opposite sex friends	Yes	105(47.9)	35(16.0)	70(32.0)	2.15	0.142
	No	114(52.1)	49(22.4)	65(29.7)		
Exercise	Yes	51(23.3)	22(10.0)	29(13.2)	0.64	0.423
	No	168(76.7)	62(28.3)	106(48.4)		
Smoking	Yes	22(10.0)	7(3.2)	15(6.8)	0.44	0.506
	No	197(90.0)	77(35.2)	120(54.8)		
Drinking (weekly)	No	79(36.1)	39(17.8)	40(18.3)	6.65	0.036
	<3 times	121(55.3)	40(18.3)	81(37.0)		
	3 times<	19(8.7)	5(2.3)	14(6.4)		

준편차를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의 차이는 t-test,  $\chi^2$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 검정은 t-test로 분석하였다.
- 4)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 폭력 허용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간의 상관관계는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 총 219명 중에서 여학생이 157명(71.7%), 남학생이 62명(28.3%)이었고, 연령은 20세 미만 이 50명(22.8%), 21-25세가 151명(68.9%), 26세 이상이 18명(8.2%) 이었다. 종교를 갖고 있는 대상자는 77명(35.2%)였고,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142명(64.8%)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66명(30.1%), 2학년이 47명(21.5%) 이었 으며, 3학년이 74명(33.8%), 4학년은 32명(14.6%) 이었다. 대상자의 용돈은 20만원 이하를 받고 있는 경우가 37명(16.9%)이었고, 20-40만원 사이의 용돈을 받고 있는 경 우가 129명(58.9%), 40만원 이상의 용돈을 받고 있는 경 우가 53명(24.2%)이었다. 학과 만족도는 보통이 59.4%였 고, 만족하고 있는 학생이 27.9%, 불만족하고 있는 학생 이 12.8%이었다. 이성 친구가 없는 경우가 52.1%, 있는 경우가 47.9% 있었으며, 운동은 76.7%가 운동을 하고 있 었다. 흡연은 90.0%가 금연을 하고 있었으며 음주는 64% 가 주에 1회 이상 음주를 하고 있었다. Table 1.

본본 연구 대상자 중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을 확 인한 결과<Table 1>, 일 년에 한두 번 이상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경우가 61.6%(135명)나 되었으며 38.4%(84명)는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이 없었다.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135명 중에서 여학생은 46.6%(102 명), 남학생이 15.1%(33명)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연령 에서 21-25세군이 45.2%, 20세 미만 군이 10.5%, 26세 이 상군은 5.9%순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이 있었다. 학 년별로는 3학년이 24.7%로 가장 많았고, 2학년 15.5%, 1 학년 14.2%, 4학년 7.3%순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이

있었으며. 학과 만족도에서 보통인 경우가 37%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이 있었고, 만족하고 있는 경우 14.2%, 불 만족이 10.5%로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이 있었다. 운동을 하고 있는 그룹에서 13.2%를 경험하고 있는 반면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그룹에서 48.4%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 을 하고 있었고, 음주에서는 3회 미만/주 군이 37.0%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이 가장 많았고, 3회 이상/주 군이 6.4%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이 있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chi^2=7.01, p=.030$ ), 학년( $\chi^2=14.13, p=.003$ ), 학과 만족도( $\chi^2=8.02, p=.018$ ), 음주유무 ( $\chi^2=6.65, p=.036$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용돈( $\chi^2=4.91, p=.086$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 3.2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 폭력 허용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폭력 허용도는 평균 1.76점으로 중 간 이하였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평균 3.54점으로 나 타났고, 하부요인인 문제규정이 평균 3.83점으로 가장 높 았고, 수행확인이 평균 3.63점, 대안산출은 평균 3.52점 순이었으며, 의사결정이 평균 3.4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135명중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은 평균 1.25점이었고, 하부요인인 정서적 가해 경험은 1.37점, 신체적 가해 경험은 1.12점으로 일 년에 한두 번 이하로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을 하고 있었 다.Table 2.

Table 2. The subject's dating violence experience, violence tolerance,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N=219)

Variables	Mean±SD	Min	Max
Dating violence(N=135)	1.25±0.44	1.00	4.00
Emotional	1.37±0.55	1.00	4.00
Physical	1.12±0.40	1.00	4.00
Violence tolerance	1.76±0.78	1.00	4.47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3.54±0.45	2.53	4.78
Problem definition	3.83±0.54	2.40	5.00
Alternative output	3.52±0.48	2.20	5.00
Decision	3.47±0.54	2.30	5.00
Verify action	3.63±0.56	2.10	5.00

Table 3. Difference of violence tolerance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ccording to experience of date violence (N=219)

Variables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t	p
	No(N=84) Mean±SD	Yes(N=135) Mean±SD		
Violence tolerance	1.58±0.77	1.87±1.87	-2.72	0.007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3.60±0.50	3.50±0.42	1.69	0.092
Problem definition	3.91±0.59	3.79±0.50	1.59	0.113
Alternative output	3.59±0.51	3.47±0.45	1.75	0.081
Decision	3.54±.057	3.43±0.52	1.53	0.127
Verify action	3.69±0.62	3.59±0.51	1.25	0.212

Table 4. Correlation between experience of violence, violence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N=135)

Variable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i>r</i>							
① Dating violence	1							
② Emotional	.95**	1						
③ Physical	.88**	.69**	1					
④ Violence tolerance	.31**	.33**	.23**	1				
⑤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11	-.09	-.09	-.26**	1			
⑥ Problem definition	-.09	-.07	-.10	-.26**	.92**	1		
⑦ Alternative output	-.11	-.09	-.11	-.23*	.84**	.70**	1	
⑧ Decision	-.14	-.13	-.14	-.25**	.80**	.62**	.71**	1
⑨ Verify action	-.03	-.05	-.001	-.18*	.86**	.82**	.58**	.51**

\* p&lt;0.005, \*\* p&lt;0.001

### 3.3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 경험에 따른 폭력 허용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에 변수들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Table 3.,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에 따라 폭력 허용도 ( $t=-2.72, p=.007$ )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t=1.69, p=.092$ ), 하부요인인 대안산출( $t=1.75, p=.081$ )과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4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 폭력 허용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 학년, 학과 만족도, 음주의 영향을 제외시킨 편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Table 4.,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은 폭력 허용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었으며( $r=0.31, p<.001$ ), 하부요인인 정서적 폭력 가해경험( $r=0.33, p<.001$ )이 신체적 폭력 가해경험( $r=0.23, p=.002$ )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폭력 허용도는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 $r=-0.26,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의 하부요인인 문제규정( $r=-0.26, p<.001$ )이 의사결정( $r=-0.25, p<.001$ ), 대안산출( $r=-0.23, p<.001$ ), 수행확인( $r=-0.18, p<.001$ )보다 더 높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 중에서도 정서적 가해 경험이 많을수록 폭력 허용도가 높았으며, 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논의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로 사회 문화적 요소에 따라 발달하며, 취업, 결혼 등의 문제들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 폭력 허용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일 년에 한두 번 이상 데이트 폭력 가해를 한 경우가 61.6%(135명)나 되었으며 이 중 여학생은 46.6%(102명), 남학생 15.1%(33명)가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Kang과 Lee [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연구 대상자인 간호 대학생의 대부분이 여성이었지만, 157명중 102명(46.6%)이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이 있었다는 것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이성 파트너의 공격에 대한 자기 방어적 수단으로 데이트 폭력을 가해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선행연구 결과로[6,29]설명할 수 있다. 향후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인식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질적 연구가[30] 필요하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의 차이에서는 연령, 학년, 학과 만족도, 음주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Mun과 Chung [2]의 연구에서 연령, 교제기간과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이성친구 연령이 높을수록, 교제기간이 길수록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이 많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2]와 같이 보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은밀한 방식으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경미한 수준의 폭력으로 가볍게 인식하고 있기에 가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이것을 진정한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15]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기인 캠페인이나 전문 상담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과 음주문제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Quyen Epstein-Ngo 등 [3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 알코올로 인해 무의식적 공격성이 반영되어 공격 성향을 강화시켜 데이트 폭력 가해로 표면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음주자를 대상으로 절주를 위한 예방적 교육에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은 평균 1.25점으로 측정 되었고, 하부 영역에서 정서적 가해 경험이 1.37점, 신체적 가해 경험이 1.12점으로 정서적 가해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Kang과 Lee [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정서적 가해가 많을수록 불안, 우울, 적대감의 증상의 심각성이 증가할 수 있고[33], 심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의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반응으로써 폭력이 학습되어 발생 될[6][15]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연구 대상자의 폭력 허용도는 5점 만점에서 평균 1.76점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에 따른 폭력 허용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t=-2.72, p=.007$ ). 이는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Mun과 Chung [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폭력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갈등상황에서 문제해결 방법으로 폭력을 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54점으로 나타났으며, 하부영역별 문제규정이 가장 높았고, 의사결정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Yang과 Mun [2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간호 대학생은 프로그램 성과 평가 교육 과정에서 비판적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중심의 교육과정을 임상실습에 적용하여 직면한 문제를 세분화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을 찾는 기술이 향상되었다[28].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타인과의 대인관계를 통해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해 합리적인 반응이 부족할 것으로 추측 해 볼 수 있다.

연구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 폭력 허용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이 높을수록 폭력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a와 Seo, Mun과 Chung [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행동은 자연스러운 일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폭력을 인식하면, 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높아져서 결국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 Shin [33]이 제시하였듯이 사회의 변화로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학교 이전의 단계부터 대인관계 방법, 긍정적인 갈등 해결방법 등의 조기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폭력을 주로 문제해결 방법으로 선택한다는 Mun과 Chung, Dibble과 Straus [2,3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폭력 허용도가 높아져 데이트 폭력가해 경험이 많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폭력을 유발하는 갈등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진다는 Nock, 와 Mendes [18]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차이는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이 없는 집단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t=1.69, p=.092$ ). 그리고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의 상관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0.10, p<0.124$ ).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가해경험 유무에 따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Chu와 Lee, Yoo[17,35]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ll과 Higgins[12]의 연구결과에서 신체적 데이트 폭력 가해의 가능성이 높을수록 충동적이고 회피적인 사회적 문제해결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Reich 등 [19]의 연구에서도 데이트 폭력에 대해 회피적인 사회적 문제해결을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으로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볼 때, 간호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과 폭력 허용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들에게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들[2]을 촉발시킬 수 있는 데이트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저학년부터 폭력 허용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이 각 개인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 폭력 허용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고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함양시킬 수 있도록 다학제간의 융합적 교과 운영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 폭력 허용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간호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은 연령, 학년, 학과 만족도와 음주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이 많을수록 폭력 허용도가 높았으며, 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력 허용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도록 데이트 폭력 가해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에서 대학생으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시작되는 음주에서 건강한 절주를 통해 대인관계 갈등 시 음주로 인한 자신의 갈등을 폭력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조기폭력 예방 교육에 포함 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충청지역 5개 대학교에서 제학중인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기에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국적이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확대 조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제 변수들 간의 차이 검정 및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그쳤다. 추후 간호 대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데이트 폭력 경험과 문제 음주 경험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 REFERENCES

- [1] Y. J. Ha & M. K. Seo. (2014). A Study of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Social Science Research*, 30(4), 79-102. <https://www.dbpia.co.kr>
- [2] J. H. Mun & H. J. Chung. (2015). College Students' Experiences of Dating Violence and Violence Tolerance. *Family and Family Therapy*, 23(4), 627-653. <http://www.familytherapy.or.kr>
- [3] I.H. Jo &, Y. H. Kim. (2009). Effects of Dating Characteristics, Attachment Style, & Quality of Relationship on Dating Violence of College Student. *College of Ecology*, 13(1), 105-124. <http://www.riss.kr/link?id=A76515177>
- [4] J. Yoon, S. Y. Yang & B. K. Park. (2012). The Influence of Domestic violence, Patriarchal Gender Role Attitude, and Inferiority Complex on Acceptability of College Dating Viol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6), 79-107. <http://www.kyra.or.kr>
- [5]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2013). What is dating violence? <https://www.cdc.gov/violenceprevention>
- [6] H. S. Kang & E. S. Lee. (2014). Predictive Factors for Perpetrations of Dating Violence i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 Nursing*, 23(4), 288-298. doi.org/10.12934/jkpmhn
- [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
- [8] A. S. Kang & E. J. Chang. (2017). A Critical Review of Research Studies on Crime Victim Support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2), 451-459. <https://doi.org/10.15207/JKCS>
- [9]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6). Statistics of Crime Statistics by the Police Agency (Sexual Violence). [www.police.go.kr](http://www.police.go.kr)
- [10] Korean Women Hot Line. (2016). Survey Result of Dating Violence. [www.hotline.or.kr](http://www.hotline.or.kr)
- [11] M. A. Straus, S. L. Hamby & S. Boney-McCoy.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Journal of Family*, 17(6), 283-316. <https://doi.org/10.1177/019251396017003001>
- [12] K. M. Bell & L. Higgins. (2015). The Impact of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Experiential Avoidance on Maladaptive Problem Solving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Behavioral Science*, 5(2), 154-175. <https://doi.org/10.3390/bs5020154>
- [13] K. A. Tyler, D. A. Brownridge & L. A. Melander. (2011). The Effect of Poor Parenting on Male and Female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Sociology Department, Faculty Publications*, 26(2), 218- 248. <https://doi.org/10.1891/0886-6708.26.2>
- [14] S. E. Goldstein, D. Chesir-Teran & A. McFaul. (2008). Profiles and Correlates of Relational Aggression in You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3), 251 - 265. <https://doi.org/10.1007/s10964-007-9255-6>
- [15] S. Y. Jung, C. Y. Lim & M. S. Lee. (2011). The Effects of Prejudice on Dating Violence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Violence Acceptability and Relationship Conflict.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7(4), 127-151.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749291>
- [16] T. J. D'zurilla. & A. M. Nezu. (1990). Social problem -solving in adults. In P. C. Kendall (de). *Advances in cognitive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Academic Press.
- [17] J. J. Chu. (2015). *The Relationships among Dating Violence,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http://www.riss.kr/link?id=T14002517>
- [18] M. K. Nock & W. B. Mendes. (2008). Physiological Arousal, Distress Tolerance, and Social Problem - Solving Deficits Among Adolescent Self-Injur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1), 28 - 38. <https://doi.org/10.1037/0022-006X.76.1.28>
- [19] C. M. Reich, N. Blackwell, C. A. Simmons & J. G. Beck. (2015). Social Problem Solving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Aftermath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Anxiety Disorder*, 7, 31 - 37. <https://doi.org/10.1016/j.janxdis.2015.02.007>
- [20] Y. H. Shin. (2012). Influencing Factors for Nurses' Problem Solving Ability Related to Dysfunctional Beliefs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y.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8(3), 402 - 412. <https://doi.org/10.22650/JKCN.2012.18.3.402>
- [21] F. Faul, E. Erdfelder, A. G. Lang & A. Buchner.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22] M. A. Strous.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Family*, 41, 75 - 88. DOI: 10.2307/351733
- [23] M. Shephard. & J. Campbell. (1992). The Abusive Behavior Inventor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7, 291-305. <https://doi.org/10.1177/088626092007003001>
- [24] J. H. Choi. (2005). *The Influence of Family Experience of Child on Dating Violence of College Students: Focused on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http://www.riss.kr/link?id=T9730195>
- [25] H. M. Nam. (2003). *Study on Predicting Date Rape among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http://www.riss.kr/link?id=T8927409>
- [26] L. Foo & G. Margolin.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4), 351-377. <https://doi.org/10.1007/BF02110711>
- [27] K. Huh. (1999). *The Effects of Impulsivity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on Juvenile Delinquency*.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 [28] N. Y. Yang & S. Y. Mun. (2013). The Impact of Health Status,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ocial Problem Ability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1), 33-42.

- <https://doi.org/10.5977/2013.19.1.33> jkasne.
- [29] J. A. Elmquist, J. Febres, H. Zapor, C. Wolford-Clevenger, R. C. Shorey, J. Hame & G. L. Stuart. (2016). Motivations for Psychological Aggression Among Dating College Students, *Partner Abuse*, 7(2), 157-168. <https://doi.org/10.1891/1946-6560.7.2.157>
- [30] S. J. Lee & J. S. Ki. (2017). Convergence study on Relationship among Verbal violence experience, Verbal violence impact and Burnout in Operating Room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6), 85-96. <https://doi.org/10.15207/JKCS.2017.8.6.085>
- [31] V. Singh, Q. Epstein-Ngo, R. M. Cunningham, S. A. Stoddard, S. T. Chermack & M. A. Walton. (2015). Physical Dating Violence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with Alcohol Misuse, *Drug Alcohol Depend.* 1(153), 364 - 368. <https://doi.org/10.1016/j.drugalcdep.2015.05.003>
- [32] J. R. Temple, H. J. Choi, J. Elmquist, M. Hecht, M. Miller-Day, G. L. Stuart, M. Brem & C. Wolford-Clevenger. (2016). Psychological Abuse, Mental Health, and Acceptance of Dating Violenc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9(23), 197 - 202. <https://doi.org/10.1016/j.jadohealth.2016.03.034>
- [33] S. R. Shin. (2017). How does college student's experience of neglect and sexual abuse in family affect offence of dating violence? : Focused on Mediate of Violence Approval,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26(1), 11-35. <http://dx.doi.org/10.21181/KJPC.2017.26.1.9>
- [34] U. Dibble & M. A. Straus. (1990). Some Social Structure Determinants of Inconsistency between Attitudes and Behavior: The Case of Family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2(1), 71-80. DOI: 10.2307/351935
- [35] M. H. Lee & S. H. Yoo. (2005). Differences in Ego-Identity Status and Problem Solving Ability by Experience in Committing School Violenc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5, 51-68. <http://www.riss.kr/link?id=A77017635>

정 계 현(Jung Gye Hyun)

[정회원]



- 2009년 2월 : 대전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8월 : 대전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4월 ~ 2015년 2월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5년 3월 ~ 2016년 2월 : 구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9월 ~ 현재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스트레스, 간호중재, 응급간호
- E-Mail : ghjung@dju.kr

강 미 경(MI-Kyung Hong)

[정회원]



- 2009년 2월 : 건양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6년 8월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9월 ~ 2015년 2월 : 유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음주문제, 대학생, 정신건강 문제, 건강교육
- E-Mail : bladeghost@daum.net